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5일(금)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문화콘텐츠과	담당자	• 콘텐츠정책팀장 송은주 ☎440-3991 • 담당자 이진영 ☎440-39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집중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올해 콘텐츠 기업 지원에 104억 투입 -

- 콘텐츠기업 전주기 지원책 강화 ·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신규 사업 눈길-

인천시가 문화콘텐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확보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10개 사업, 104억 원(전년대비 25% 증가) 규모의 콘텐츠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개의 신규 사업,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지원 ▲인천형 콘텐츠유망기업 발굴 · 집중육성 ▲청년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확산 사업에 약 24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

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기업의 성장 및 성공단계의 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젊은 콘텐츠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성장 하는 XR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최초 GIS 분야에 메타버스 분야를 도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우수한 콘텐츠기업을 발굴·유치해 원스톱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4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인천 VR·AR(가상현실·증강현실) 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디지털)세계를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상용화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6개 사업에 약 84억 원을 투입해 131개사에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23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2022년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문화콘텐츠산업 환경에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거버넌스와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 고

## 관련 이미지

